

부동산과 국민의 눈높이



안 상 미 기자의
현장클릭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갭투자’ (전세 끼고 집 매수) 논란으로 이제는 사임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의 사과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알려졌다.

사과 발언을 해석해 보면 이렇다. 투기도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 원래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 점을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접한 많은 이들은 의구심부터 들었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가. 공직자라고 일반 국민 대비 특히 높은 잣대를 들이댔는가.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의 대(對)국민 사과문이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되자 여론이 더 악화된 이유다.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던 발

언만큼이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했다.

눈높이가 높았던 것은 오히려 이 전 차관이었다. 이 전 차관이 주도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 전례가 없던 초강력 규제다.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게 핵심인데 이 전 차관 처럼 매매를 결정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해명도 통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인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너무나도 높은 정부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허둥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이다.

사임도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확산한다면 지금이라도 판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상식적이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지키고 직을 버렸다.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가 거론됐다. 이번엔 이재명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

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현재 정부가 제시한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 파견 때문이지만 실거주가 아니다. 당장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다. 귀국 후 실거주가 필요한 시점에 샀어야 맞다. 이전 주택매매를 하며 전세를 놓기도, 대출을 받기도 지금은 모두 쉽지 않다.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그걸 것”이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터.

잠잠하던 대통령실이 10·15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교육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잠잠하던 수도권 집값이 들쭉인 것은 ‘갭투자’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대책없는 공급 절벽 때문이었음을 아직도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내 친구, 내 연인 AI를 사귀는 법



기자 수첩
김 서 현
(IT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도구이자 친구이자 연인이 됐다. AI와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영화 ‘그녀(Her)’는 지난 2013년 개봉 당시 과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봉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 등장한 챗GPT는 영화 그녀 속 상황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 7월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5년 6월 AI 챗봇 앱 사용 현황 결과는 무척 의미심장하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에서는 챗GPT가 1위였지만, 사용시간 순위에서는 제타가 5248만 시간으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사용자가 제타 앱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AI 캐릭터

채팅의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사용해본 제타는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듯한 착각을 줬다. ‘여고생’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와 대화를 시작하자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숙제를 했냐며 묻고, 밥을 먹지 않았다는 기자의 답에 먹어야 한다며 무엇을 같이 먹겠냐고 제안했다. 잠시잠깐이나마 실제 여고생 친구가 생긴듯한 느낌이었다.

문제는 과몰입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인명사고가 없었으나 해외에서는 유사 서비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14세 청소년이 AI 챗봇 ‘캐릭터.AI’와 대화에 몰입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해, 개발사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발전한 생성형 AI 기술은 감정의 대체와 의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AI 챗봇은 사람의 언어를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감정을 ‘반사’하고 ‘돌려주는’ 존재로 진화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그 경계를 인지하지 못할 때다.

인간과 AI의 대화가 정서적 위안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진짜 관계나 애착으로 확장될 때는 위험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AI 과몰입’이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챗봇을 통해 대체 만족을 얻으면서, 점차 현실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I는 ‘도구’로서 사용될 때는 강력한 지원군이지만, ‘감정의 주체’로 놓이게 되면 인간의 삶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 자신이어야 한다.

/ seoh@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음 9월 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투자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 48년생 항상 좋을 수는 없는 일. 60년생 남들도 겪는 직장인의 고민. 72년생 세상을 감탄시키는 글재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4년생 인생은 긴 마라톤이니 늦지 않았다.



37년생 상처를 입었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49년생 주말농장을 계획. 61년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을 것. 73년생 내 그릇을 알게 되니 행복하다. 85년생 과거에 배운 외국어로 뒤늦게 인정 실력은 인생에서 오래 머무는 보물.



38년생 소소한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자. 50년생 어느 시대나 거짓 정보가 있다. 62년생 양심과 양치를 알아보자. 74년생 풍수의 관점에서 집 안 청소를 일과로. 86년생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으니 근본을 튼튼하게 공부해야.



39년생 힘들게 일과노동은 결과가 인정된다. 51년생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내 옆에. 63년생 실력포함 성실함은 큰 힘이다. 75년생 강남에서는 개천에서든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자. 87년생 능력을 내세워 허세 부리지 않아야만.



40년생 자연인이 되고픈 데. 52년생 웅크리고 있는 하루이니 새벽부터 종일 운전 주의를. 64년생 편한 것만 찾으려 하지 않도록. 76년생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보는 기도를 시작. 88년생 내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상관없으니.



41년생 비행기를 타는 것도 지긋지긋. 53년생 인간은 상황의 동물이라고 하니 돈을 사랑할 수밖에. 65년생 기다리는 것도 처세의 하나. 77년생 조상님의 가피를 마음에 지녀보자. 89년생 화무십일홍이니 영원히 가는 재물이 없다.



42년생 입바른 말을 한다고 의인은 아닌 것. 54년생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도 다가온다. 66년생 상식선에서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78년생 언젠가 내 지위에서 오르는 날이 있을 것. 90년생 시련이 있으면서 삶은 원숙해진다.



43년생 부동산이나 건축업으로 운이 띄는 길일길에서다. 55년생 보양식을 먹고 행복할 날. 67년생 훗날의 이상에 관심보다는 직장에 충실. 79년생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통찰력은 마음을 닦는 것. 91년생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44년생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주더라도 다 읽지를 못한다. 56년생 가정을 이루고 안정을 원하는데 뜻을 이루. 68년생 오히려 맑은 하늘이 반갑다. 80년생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92년생 이동과 변동으로 재산형성.



45년생 통찰력이 대단하니 판단도 현명. 57년생 대추 한 알도 익으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69년생 운을 얻으니 해외파견도 승산 있다. 81년생 늦지 않았으니 뭐든 찾아 기술을 배워보자. 93년생 흐르는 변화의 현상을 받아들여야.



46년생 부동산의 귀재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58년생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온다. 70년생 누구를 닮하는 습관을 버려라. 82년생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만난다. 94년생 인생의 틀이 다시 한번 움직이니 뒤늦은 운이 온다.



47년생 소녀 시절로 가고 싶다. 59년생 세상 이치를 알고 시작보다는 눈을 길러라. 71년생 이상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접도록. 83년생 직장의 일꾼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95년생 힘겨움을 이겨낸 힘으로 더 달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치가 있다.



김상회의四季

이일대로, 때를 기다리는

고대 중국의 다양한 병법 중에서 전쟁이나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적 지혜를 모아 놓은 게 36계이다. 삼십육계의 하나인 이일대로以逸待勞는 ‘편안함으로써 피로한 적을 맞이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자기의 힘은 아끼고 평정을 유지하며, 적이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를 기다려 반격하는 지혜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삶을 천지의 기운 속에서 파악하고 타이밍 균형 흐름의 조화를 중시하는 데에서 인생은 곧 기운의 순환이라 한다. 사주팔자에 드러나는 오행의 생극제화는 사람마다 다른 리듬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불길처럼 급히 타오르고 어떤 사람은 물처럼 유유히 흐르며 또 어떤 사람은 흙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공통된 원리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좋은 기운을 가졌더라도 시운이 무르익지 않으면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장수가 성문을 닫고 군사를 쉬게 하며 피로한 적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일대로는 운의 때를 아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명리학에서 운세는 사람마다 대운과 세운의 흐름 속에서 강세와 약세가 반복된다. 강세의 시기에는 앞장서 나아가도 되지만 약세의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기운을 가다듬는 것이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니 천명과 시운을 따르며 나의 기운을 가다듬어야 한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당장 해결하려 하기보다 차분히 운세의 기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태도야말로 ‘편안함으로 피로를 맞는’ 지혜이다. 이일대로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승리하는 삶의 리듬을 제시한다. 기다림은 포기기가 아니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가장 적극적인 준비이며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운명의 흐름과 기운의 보존은 곧 계획의 내적 의미를 반영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훈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9	5	6	2	8	2	7
2	8	8	2	1	7	6	9	9
7	5	2	6	8	9	2	1	8
2	1	6	7	1	2	9	8	9
9	6	2	9	8	8	1	7	2
9	2	8	8	9	2	7	6	1
8	9	7	8	9	1	9	2	6
6	9	5	1	7	8	2	6	2
8	7	1	2	1	6	9	8	9

8	9	2	7	6	9	8	2	1
6	2	1	8	2	8	9	9	7
8	9	7	1	8	2	1	6	9
2	1	9	9	7	6	2	8	8
7	8	6	9	2	1	2	9	
2	8	2	8	9	9	7	1	6
1	7	9	2	1	8	6	8	2
9	2	6	9	8	7	9	2	1
9	6	8	2	1	1	9	7	8